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일상 속 과학 원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입니다. 며칠 전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라면 국물에는 역시 갓 지은 밥보다 찬밥을 말아 먹어야 더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호화와 노화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쌀의 약 7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전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그것부터 설명해야겠군요. 전분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쌀, 밀 등의 식물에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여 주며) 이것은 생쌀의 전분 입자인데,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분자가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1에서 입자의 일부를 확대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면 용수철처럼 생긴 아밀로오스와 갈퀴처럼 생긴 아밀로펙틴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쌀과 물을 함께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2를 보여 주며) 밀집된 분자들 사이로 수분이 침투합니다. 이로 인해 분자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분자의 모양도 흐트러져 그림처럼 전분 입자의 모양과 구조가 변합니다. (그림 1과 그림 2를 나란히 보여 주며) 이렇게 전분이 왼쪽 그림의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의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된 쌀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사람들은 보통 갓 지은 밥을 선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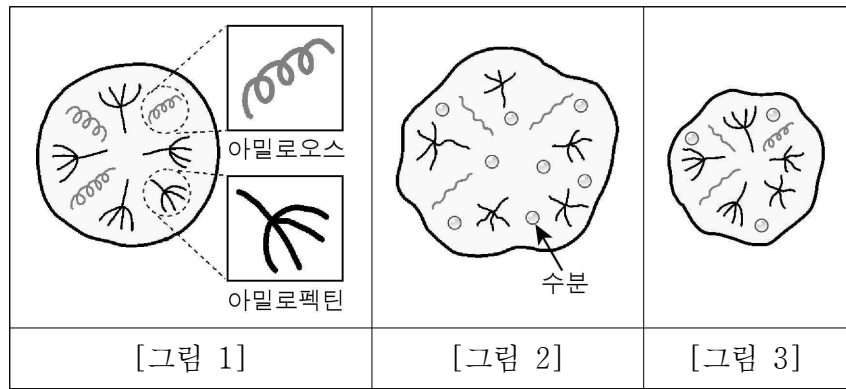
그런데 갓 지은 밥을 오래 두면 식으면서 밥알이 굳습니다. 이는 전분의 노화 때문입니다. (그림 3을 보여 주며) 노화는 호화된 전분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이 일부 탄수화물 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분자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노화는 온도가 0도에서 60도 사이이거나 전분의 수분 함량이 30%에서 60% 사이일 때 잘 일어납니다. 전분이 노화되면 밥이 딱딱해지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도나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면 국물에는 찬밥이 더 어울리는 이유로 돌아가 볼까요? 찬밥의 노화된 전분은 국물을 흡수하면서 수분을 회복해 호화된 전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밥에 간도 잘 배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갓 지은 밥의 경우는 어떨지 그 전분 구조를 노화된 전분과 비교해 살펴볼까요? (그림 2와 그림 3을 나란히 보여 주며) 왼쪽 그림의 호화된 전분에는 오른쪽 그림의 노화된 전분에 비해 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분의 수분이 국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해 간이 싱거워져 찬밥을 만 경우에 비해 맛이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라면 국물에 찬밥이 어울리는 이유는 (그림 1, 2, 3을 차례로 보여 주며) 온도와 수분의 변화에 따라 전분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도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궁금증을 지나치지 않으면 신기한 과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한 후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바라는 바와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그림이다. 발표자의 그림 활용에 대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 1]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전분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분자의 모양을 상세하게 보여 주어야겠어.
- ② [그림 2]를 활용하여 전분의 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분 입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 ③ [그림 1]과 [그림 2]를 함께 제시해서 호화 이전과 이후 전분의 상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그림 2]와 [그림 3]을 함께 제시해서 찬밥의 노화된 전분이 국물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설명해야겠어.
- 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서 라면 국물에 찬밥이 어울리는 이유를 호화 및 노화의 원리와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라면 국물에도 당연히 갓 지은 밥이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매일 먹는 밥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어 유익했어.
- 학생 2: 먹다 남은 떡을 바로 열리는 것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일 것 같아. 온도와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더 있는지 찾아봐야지.
- 학생 3: 삼투압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았는데 간단히 언급해서 아쉬워. 갓 지은 밥을 라면 국물에 말 때 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관련하여 발표에서 아쉬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4~7]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 과제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쓰기’였지? 이왕이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학교생활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최근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없었어?

학생 2: 얼마 전 자율활동 시간에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상 기억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의미가 있었어. 하지만 사례 위주여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알기 힘들었어.

학생 3: 나도 그 영상이 유익했어. 사례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신문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 그런데 영상을 시청하는 활동에만 그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어.

학생 1: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영상의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담고 있어 유익했지만 대처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활동 측면에서는 영상 시청 이후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활동 시간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담임 선생님께 건의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 보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학생 3: 퀴즈 프로그램은 어때? 영상에 언급된 사례를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대처 방안을 답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퀴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도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른 프로그램은 또 없을까?

학생 2: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는 어때? 영상에서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어려움이 생긴 사례가 있었잖아. 양식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써 보는 프로그램을 건의해 보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야.

학생 3: 그래. 근로 계약서는 직업을 가질 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으로 근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

학생 1: 그러면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도 건의문에 추가할게. 그런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건의를 받는 쪽의 부담을 줄일 방법도 생각해 보자.

학생 3: 그러면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추가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아. 선생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우미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수용 가능성이 높은 건의문을 쓸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건의문의 초고를 써 볼게.

(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자율활동 시간에 시청한 영상에

관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건의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다루어 유익했지만 대처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영상 시청 후에 이어지는 추가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활용해 만든 퀴즈를 풀면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퀴즈를 좋아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활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힘들 테니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도우미를 맡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질문을 준비하거나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에서는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반 모두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의 목적을 이유로 들어 대안에 관한 설명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제시된 방안의 기대 효과를 들어 상대방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문제를 드러내어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범주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⑤ 주어진 과제를 환기하며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5.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학생 2’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 모두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학생 3’은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학생 3’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한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학생 3’은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6.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학생 2’가 영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나)의 1문단에서 영상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 ② (가)에서 ‘학생 3’이 아쉬움의 이유로 언급한 내용은 (나)의 1문단에서 건의문 작성의 동기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3’이 퀴즈 프로그램의 참여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나)의 2문단에서 참여 대상의 특성과 함께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2’가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를 제안하면서 고려한 내용은 (나)의 2문단에서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관한 언급으로 이어졌다.
- ⑤ (가)에서 ‘학생 3’이 도우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나)의 3문단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추가되어 제시되었다.

7. ‘학생 2’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예/아니오)
○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
○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에 관하여 그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는가?	㉢
○ 건의 내용이 다수를 위한 것임을 제시했는가?	㉣
○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가?	㉤

- ① 자율활동 때 시청한 영상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활동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을 ‘예’라고 해야지.
- ②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퀴즈 프로그램과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를 언급한 점을 고려해 ㉡를 ‘예’라고 해야지.
- ③ 도우미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를 ‘예’라고 해야지.
- ④ 건의 수용 시 기대되는 효과가 우리 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를 ‘예’라고 해야지.
- ⑤ 친구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를 ‘예’라고 해야지.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글을 교지에 신고자 함.

[초고]

바닥을 지상과 가깝게 만들어 출입문의 계단을 없앤 저상 버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처럼 시설이나 제품,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이전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전용 시설을 설치하였다. 지하철역의 계단 옆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용 시설이 장애 유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와 무관하게 모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되었다.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취지가 확대되어, 장애뿐 아니라 연령, 질병, 언어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힘이 약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것, 조작이 서툴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이용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제품이나 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언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에 그림을 넣는 것 등이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은 아직 저조한 편이며, 새로운 시설이나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은 그것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다. 장기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설명한다.
- ㉡. 유니버설 디자인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사례를 소개한다.
- ㉢.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인식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목적을 도입 이전의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밝힌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그와 관련해 예상 독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 ① 사회 구성원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학교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보자.
- ②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하려면 시민들이 주변 환경을 설계하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단기간의 손익만 계산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되기 어렵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④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유니버설 디자인에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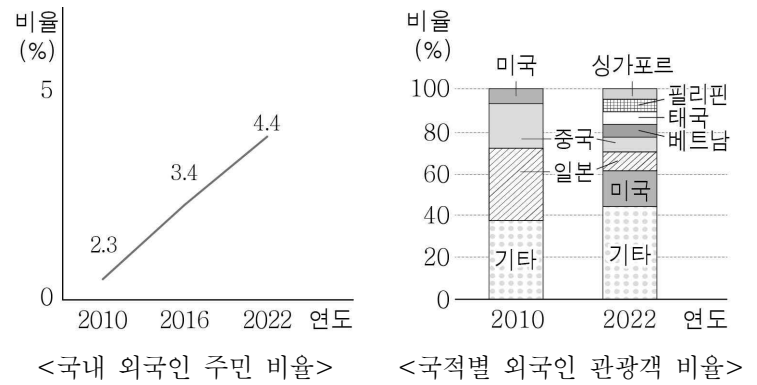
10.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

휠체어 사용자가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이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국내 통계 자료



(다) 보고서 자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시는 도시 환경 설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노화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모든 손잡이를 위에서 누르기만 해도 작동하는 레버식 손잡이로 설계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노인의 부상이 감소하여 매년 1조 7천억 원 이상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① (가): 휠체어 사용자가 리프트를 사용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장애 유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내용을 보장하는 근거로 2문단에 제시한다.
- ② (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대상을 근거로 활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연령, 질병, 언어가 포함된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한다.
- ③ (나): 국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와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화된 사실을 근거로 활용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유를 4문단에 추가한다.
- ④ (다): 레버식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 바닥을, 각각 조작이 용이한 제품과 안전하게 설계된 환경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3문단에 제시한다.
- ⑤ (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절감액,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4문단에 제시한다.

11.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에서 ‘내가 읽은’은, ‘이것은 책이다.’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채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절이라 한다. 관형사절은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아래 (1)과 (2)의 유형으로 구별된다.

(1) 그는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 사실을 안다.  
 (2)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1)은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다.’가 ‘그는 사실을 안다.’에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이때 관형사절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은 서술어의 형태는 변했지만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 (1)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은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사실’, ‘소문’ 등의 체언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2)는 ‘땀이 이마에 흐른다.’가 ‘그는 땀을 닦았다.’에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이때 관형사절 ‘이마에 흐르는’은 수식하는 체언인 ‘땀’을 포함하는 문장 성분 ‘땀이’가 생략된 것으로,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 중에서 하나를 갖추고 있지 않다. (2)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은 (1)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과 달리 모든 체언 앞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2)에 쓰인 유형의 관형사절을 만들 때 특정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1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절은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② 문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춘 관형사절이 있다.
- ③ 어떤 문장이 관형사절이 될 때 서술어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
- ④ 관형사절 뒤에는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체언만 올 수 있다.
- ⑤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을 포함하는 문장 성분은 관형사절에서 생략될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과제]**  
 다음 문장을 활용하여 관형사절에 대해 알아보자.

-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
-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
- 영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

**[학습 과정]**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고 이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철수가’는 생략된다. 반면 첫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에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고 이때 첫 번째 문장의 ㉢인 ‘학급 회장이’가 생략된다. ‘학급 회장이’가 생략되면서 관형사절의 ‘철수가’가 ㉣처럼 쓰이게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학습 결과]**  
 관형사절을 만들 때 주어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관형사절의 의미가 달라진다.

- ① ㉠: ‘영희가 학급 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
- ② ㉡: ‘영희가 철수가 된 학급 회장을 불렀다.’
- ③ ㉢: 보어
- ④ ㉣: 주어
- ⑤ ㉣: 보어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파생어 중에는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꽃사과’는 어근 ‘사과’ 앞에 ‘아직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사 ‘꽃-’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또한 파생어 중에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예를 들어 명사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근 ‘웃-’에 접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 ① 일찍이
- ② 마음껏
- ③ 가리개
- ④ 높다
- ⑤ 슬기롭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학생:** 선생님, ‘바람이 일고’의 ‘일고’는 [일고]로 발음되는데, ‘책을 읽고’의 ‘읽고’는 왜 [일꼬]로 발음되나요?  
**선생님:** ‘읽고’가 [일꼬]로 발음되는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 및 된소리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읽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꼬]로 발음되는지 자료를 토대로 탐구해 볼까요?

**[자료]**

㉠ 자음군 단순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종성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

**[탐구 과정]**

1. ‘읽고’의 발음으로 보아 ㉠과 ㉡이 모두 일어났다.
2. ㉠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첫째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음절 종성은 [ㄷ]로 발음된다. 그런데 ‘일고’의 발음을 참고할 때, 종성 [ㄷ] 뒤에 ‘ㄱ’이 연결된다는 것은 ㉡이 반드시 일어나는 ㉠
3. ㉡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첫째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인 ‘ㄱ’으로 인해 둘째 음절의 초성이 ㉡로 발음된다. 그 후 ㉠이 일어난다고 하면 ‘읽고’의 발음을 설명할 수 ㉢

**[탐구 결과]**  
 ‘읽고’는 된소리되기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일꼬]로 발음된다.

- |   | ㉠        | ㉡   | ㉢   |
|---|----------|-----|-----|
| ① | 조건이다.    | [ㄱ] | 없다. |
| ② | 조건이다.    | [ㅍ] | 있다. |
| ③ | 조건이 아니다. | [ㄱ] | 있다. |
| ④ | 조건이 아니다. | [ㅍ] | 있다. |
| ⑤ | 조건이 아니다. | [ㅍ] | 없다. |

15. <보기 1>의 ㉠~㉢에 따라 <보기 2>의 ㉠~㉢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 보기 1 > —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고,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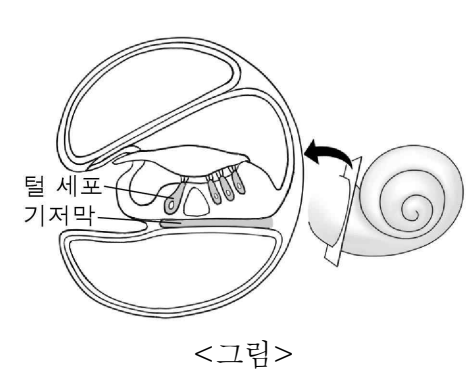
— < 보기 2 > —

孟宗(맹종)의 ㉠ 므스미 至極(지극) 孝道(효도)롭더니 ㉡ 어미 늙고 病(병)하야 이셔 ㉢ 겨스리 다다라 오거늘 竹筍(죽순)을 먹고져 커늘 孟宗(맹종)이 대수페 가 운대 이숙고 竹筍(죽순) 두셔 ㉣ 줄기 나거늘 가져다가 羹(갱) 밍궤라 이바드니 어미 病(병)이 도커늘 사르미 다 일궤로되 ㉤ 孝道(효도) | 至極(지극)하야 그러흐니라 흐더라

**[현대어 풀이]**  
 맹종의 마음이 지극히 효성스럽더니 어미가 늙고 병들어 있어 겨울이 다다라 오자 죽순을 먹고자 하니 맹종이 대숲에 가 우니 이숙고 죽순 두어 줄기가 나기에 가져다가 국 만들어 드리니 어미의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다 일컫기를 “효도가 지극해서 그렇다.” 하더라.

	㉠	㉡	㉢
①	a	c, e	b, d
②	a, c	d	b, e
③	a, c	b, d	e
④	b, e	c, d	a
⑤	e	b, d	a, c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림프액이 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 기관이다.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기저막 위로는 털 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과 털 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 지니는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즉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쪽에서부

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㉔ 보인다.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 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 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 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므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털 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㉑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 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 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 세포에서 방출되도록 ㉒ 만들어 해당 털 세포와 연결한 신경 섬유를 흥분시킨다. 개별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이는 개별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경 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 신호는 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㉓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는데,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 섬유를 통해 기저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되고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 섬유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 세포와 연결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 주파수: 파동이 1초 동안에 주기 운동을 하는 횟수. 단위로 헤르츠(Hz)를 사용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달팽이관으로 전달된 파동은 기저막을 바깥쪽부터 진동시킨다.
- ② 기저막에서 단단한 부위일수록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 진동한다.
- ③ 파동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가 길다.
- ④ 중뇌와 대뇌를 연결하는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 ⑤ 1차 청각 피질에서 얼굴 부분에 가까운 부위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 신호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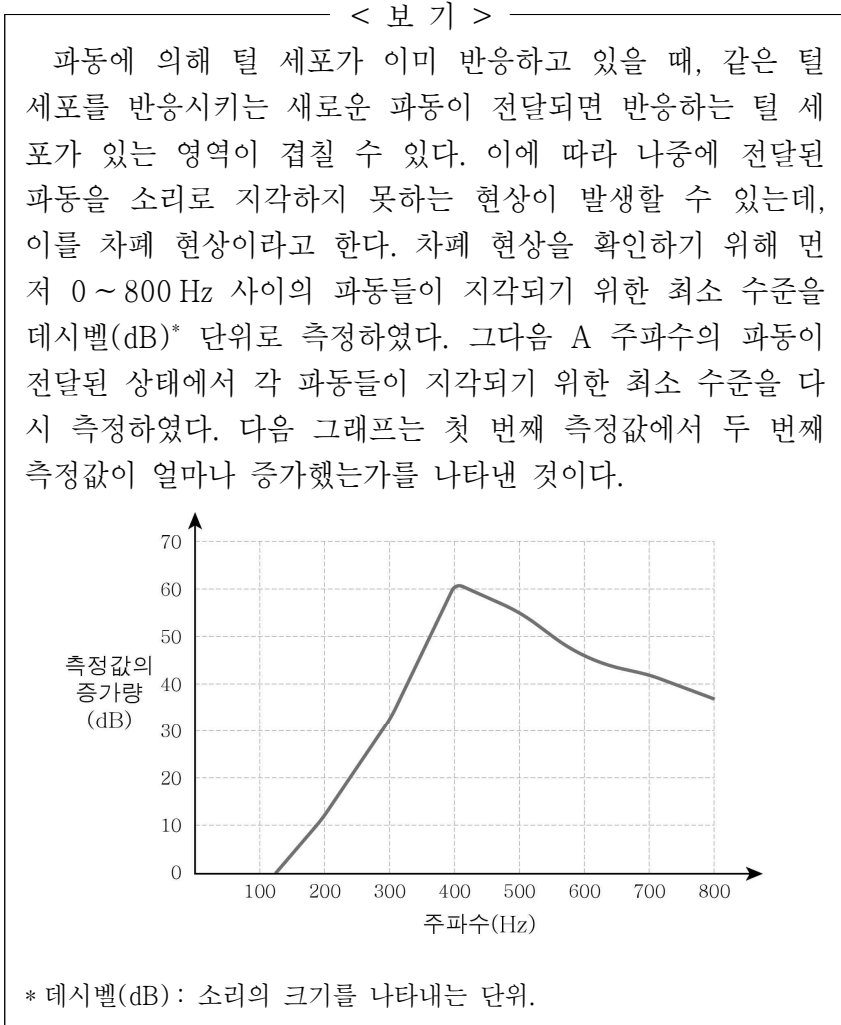
17. **털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털을 휘게 만든다.
- ② 연결한 신경 섬유를 신경 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
- ③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많이 진동시킨다.
- ④ 신경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 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될 때마다 변한다.

18. ㉑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이다.
- ② 개별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달팽이관으로 동시에 전달된 다른 파동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 ③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④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저막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 ⑤ 림프액으로 전달된 파동의 주파수는 달팽이관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주파수가 200 Hz인 파동이 10 dB로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되었을 것이다.
- ② 기저막에서 A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 진동하는 부위보다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나겠을 것이다.
- ③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완만한 것은 기저막이 진동하는 수준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④ 100 Hz에서 측정값의 증가량이 0인 것은, A 주파수의 파동과 100 Hz의 파동이 각각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시키는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을 것이다.
- ⑤ 그래프의 정점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400 Hz 부근인 이유는 해당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털 세포와 A 주파수의 파동에 반응하는 털 세포가 가장 많이 중복되기 때문이겠을 것이다.

20.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답습(踏襲)하여
- ② ㉡ : 담당(擔當)하는데
- ③ ㉢ : 제시(提示)한다
- ④ ㉣ : 형성(形成)하여
- ⑤ ㉤ : 경유(經由)하여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 사조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 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 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 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 사조이다.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

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며,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 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한 흠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또한 강렬한 채색, 거친 붓 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 사조라고 할 수 있다.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술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하며 예술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② 미술 사조의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미술 사조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 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학자가 주장한 미학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사상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반영하고자 했다.
- ②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붓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과 명확한 윤곽선으로 사물의 형태가 강조되어 있다.
- ③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리스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의 불안과 공포를 강렬한 색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 ④ 낭만주의 미술이 보여 준 역동적인 구도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추구한 이상적인 형식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 ⑤ 미술을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낭만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주제에 관심을 보였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겠군.
- ② ㉡은 ㉠과 달리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판단은 변화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③ ㉠과 ㉡은 모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겠군.
- ④ ㉠과 ㉡은 모두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라도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과 ㉡은 모두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수학적·적절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군.

24.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에피카르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種)이라고 주장했다.

㉡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상반된다.

㉢ 스토아 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도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 ① ㉠: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본 에피카르모스의 관점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한 헤르더의 관점과 유사하군.
- ② ㉡: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군.
- ③ ㉡: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본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다르군.
- ④ ㉢: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군.
- ⑤ ㉢: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군.

25.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빈 깡통을 가지고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 ② 두 나라는 문화적 교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③ 최근 그는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④ 그는 사업체를 여럿 가진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 ⑤ 사람들은 그의 사글사글한 인상에 호감을 가졌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 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 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 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 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행정 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가령 건축법상 건축 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주된 행정 행위인 건축 허가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다.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 정지 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부관은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월 ○일’과 같은 날짜가 그 예이다.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 종기로 나뉜다.

㉤ 부담은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 행위와 다르다.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 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첫 번째 견해는 기속 행위와 달리 재량 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기속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 행위이며,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 행위이다. 이 견해는 ㉡ 법원이 재량 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 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주된 행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 주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

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㉔ 세 번째 견해는 부관은 주된 행정 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일 뿐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된 행정 행위가 재량 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량 행위와 달리 기속 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부관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 ③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은 존속하는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 ④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부관을 통해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27.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이 성취되거나 ㉒이 도래하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② ㉑과 ㉕은 모두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속적 규율이다.
- ③ ㉑과 달리 ㉕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 구성된다.
- ④ ㉑이 성취되거나 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 ⑤ ㉑과 ㉒이 모두 붙은 행정 행위의 경우, ㉑과 ㉒ 사이의 기간에 행정 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28. ㉖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량 행위에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② 부관의 효력이 소멸되면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구분이 사라진다.
- ③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은 재량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켜야 한다.
- ④ 재량 행위의 경우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다.
- ⑤ 기속 행위와 달리 재량 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9. ㉑ ~ ㉓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량 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㉑은 위법한 부관이 붙은 재량 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㉒는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 행위가 위법해지는 경우라도, ㉓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재량 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㉑과 ㉒는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기속 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㉑과 달리 ㉓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갑은 행정청에 건축법상 재량 행위인 숙박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숙박 시설이 완공되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단,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① 갑의 건축 행위의 위법 여부를 고려하면, <보기>의 '부관'을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갑에게 유리하겠군.
- ② 법원은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기>의 '부관'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겠군.
- ③ 법원은 <보기>의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갑이 건축한 숙박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겠군.
- ④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겠군.
- ⑤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 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법원이 <보기>의 '부관'을 취소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담장 설치 의무가 사라졌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이 브린 몸이 밭이랑의 늘거 가니  
 바깥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은 년풍을 원흐노라  
 <제1수 - 원풍>

새벽 밝아 오자 지빠귀가 소리 흐다  
 일어나거라 아히들아 ㉠ 밭 보러 가자꾸나  
 밤 스이 이슬 귀운에 얼마나 기런노고 흐노라  
 <제6수 - 신>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흐여  
 비골논 ㉡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자꾸나  
 아히야 흐 그릇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제7수 - 오>

서산에 히 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  
 호미를 둘러 메고 들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닐러 무엇 흐리오  
 <제8수 - 석>  
 - 이휘일, 「전가팔곡」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나열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2. ㉠과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내며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 ③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이다.
- ④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이다.
- 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은 제6수부터 제8수에서 '새벽-낮-저녁'의 시간인 '신-오-석'으로 세분화된다. 각 수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된다.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용되는 모습은,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 ① 제6수에서 '새벽'이 밝자 '소리' 내며 지저귀는 '지빠귀'와 제8수에서 '서산에' 지는 '히'는 자연물의 모습이 특정 시간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제7수에서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을 '제때에' 맞추어 '친히 맛보아 보내'겠다는 화자의 모습은 해당 수의 시간인 낮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을 드러낸다.
- ③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 메고 들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제8수에서 저녁에 '풀 끝에' 난 '이슬'은 제6수의 '밤 스이 이슬'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작품 속 시간이 자연의 순환에 조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⑤ 제1수와 제8수에서 종장 첫 부분의 '이 중의'는 각각 '우국성심'과 '즐거운 뜻'에 함축된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한 주목을 유도한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뼈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끌을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  
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  
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 -

(나)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①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 -

(다)

“이른바, [지지(止止)]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가령 본고  
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城市) 가운데에 그친다면 사람들  
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  
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산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  
람들과 복잡하게 한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그칠 곳에 그  
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  
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  
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의 몇몇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늪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피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  
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  
니하여, 비록 대낮에 ㉠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  
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  
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를 이  
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정묘년 3월 10일에 기(記)한다.

- 이규보, 「지지헌기」 -

\* 교룡: 뱀을 닮은 상상 속 동물.

\* 명리: 명예와 이익.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며 여운을 강  
화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  
을 모으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  
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철철철’은 ‘술한 나무들’과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질푸른 산’의 모습을 부각한다.
- ② 1연의 ‘둥둥’은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 ‘씻기는 하늘’로  
향하려는 ‘흰 구름’의 움직임을 부각한다.
- ③ 2연의 ‘줄줄줄’은 ‘골짜기’의 ‘물소리’와 ‘나’의 ‘가슴’ 속을 조  
응시키며 ‘나’의 고조된 감정을 부각한다.
- ④ 2연의 ‘아른아른’은 ‘보고 싶은 하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 느끼는 그리움을 부각한다.
- ⑤ 3연의 ‘총총총’은 ‘나의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와 줄’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부각한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을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나’는 ㉡을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 ② ‘그’는 ㉠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나’는 ㉡으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만족감을 갖게 된다.
- ③ ㉠은 ‘그’가 상생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계기로, ㉡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은 ‘그’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희생되는, ㉡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 ⑤ ㉠은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연물이고, ㉡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유발하는 인공물이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 속 공간의 특성은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대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그 공간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 ① (가)에서 ‘나’가 ‘푸른 산’에서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푸른 산’은 ‘벌레 같은 세상’의 현실과 대비되는 미래에 대한 ‘나’의 기다림이 드러나는 공간이군.
- ② (나)에서 ‘농부들’이 ‘울창한 숲’을 통과해 ‘성 안’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이들이 ‘구름’이나 ‘공기들’과 같은 속성을 지님으로써 ‘성’을 온전히 경험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농부들’에게는 ‘평화로운 성’이 ‘골동품 상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보인다는 것은, 인물에 따라 동일한 공간이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④ (다)에서 ‘나’가 ‘명리의 지경’에 그치는 것을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나’에게 ‘명리의 지경’은 자신이 그쳐서는 안 될 공간처럼 인식되는군.
- ⑤ (다)에서 ‘나’가 ‘성시’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땃땃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어떤 이’가 비판한 것으로 보아, ‘어떤 이’에게 ‘성시’는 ‘명리의 지경’과 동일시되는 공간이군.

38. (다)의 구절과 관련지어 [지지(止止)]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믿음을 강조한다.
- ②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지향을 반영한다.
- ③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쳐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 ④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를 통해 아직 적절하게 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을 나타낸다.
- ⑤ ‘사람들’,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과 관련되어 이들 모두가 그쳐야 하는 곳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쓴이의 의지를 담아낸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 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난다.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 과자 꺾들!’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랭이 빵이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였다.  
‘뭉! 사 원 이십 전! 저것 한 꺾에!’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녀 장하고 십 전짜리 두 닢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 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한 달에 팔십 전씩 석 달치 월사금\* 이 원 사십 전이 변동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육 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좁쌀 값 스무 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 바닥에서 상투를 끄들리고 뺨을 맞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 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 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 꺾들이 극락에 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다.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 보았다.  
‘그래, 걱정 말아.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뭉든지 사 뭉.’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 건 발목을 빠인 때문은 아니요 힘에 부친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아이는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탐동 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이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뜨이는 건 실과 장사들이다. 광주리마다 새로 따

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 다.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 못했다.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그리고 웬 양복 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혈벳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뽀족하게 해 가지고 쉰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투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입과 껍질을 질경질경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젓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 거리었다.

‘채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 하며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 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쳐졌다. 배 껍질은 거의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쳐진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났은 맥고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여덟팔자수염이 달린 얼굴이다.

‘저이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는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여덟팔자수염이 한번 짱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덤석 물어 뎀다. 아이는 깜짝 놀래어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보았다.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만치 낙망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 껍질이 그새 흠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기었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요걸 바라구셨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두 못 먹게 할 게 무언가?’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려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다.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자가 쉰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 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 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혈벳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경거리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쫓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니깐 웃기만 하고 쉰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 한 닢을 내

어딘진다.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 전 한 닢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은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쉰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 그 어른의 지까다비\* 신은 발은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그 백동전을 눌러 덮치었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지까다비 발의 입자는 의외에도 돈은 얼른 집으려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쉰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먹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안은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집더니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한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 버렸다. 그리고 역시 흘린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 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 버렸다.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 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선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 이태준, 「점경」 -

\* 월사금: 다달이 내던 수업료.

\* 벤또, 지까다비: ‘벤또’는 도시락, ‘지까다비’는 노동자의 작업용 신발을 가리키는 일본어.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와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간접 인용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4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등으로 육 학년에 진학한 아이는 월사금을 구할 수 없어 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 ② 팔각정에 대한 기억과 공원은 누구나 쉬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기웃거리기 없이 탐동 공원으로 들어갔다.
- ③ ‘웬 양복 한 사람’ 옆에서 ‘자기보다도 더 혈벳은 아이’가 사과 껍질을 받아 먹는 것을 본 아이는 허기를 느꼈다.
- ④ 아이는 ‘남편인 듯한’ 서양 남자가 활동사진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 ⑤ 아이는 활동사진 기계의 유리알이 자신과 ‘저보다도 혈벳은 아이’를 번갈아 향하는 것을 알아채고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느꼈다.

41. '아이'와 관련지어 [전차 소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
- ② 그리움의 대상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전환하게 한다.
- ③ 어머니의 기구한 삶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된다.
- ④ 어머니와의 추억이 어린 곳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어머니가 등장하는 환상과 상반되는 현실을 절감하게 한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30년대 경성에서 상품 진열장은 당대의 인간 군상을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는 도시의 곳곳을 배회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목격한 것과 이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면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 ① '사 원 이십 전'이나 하는 과자 껍을 본 후 '수북수북 담긴' 실과들에 대한 욕심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이는 자신을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에 포함하고 있군.
- ② 아이가 바라던 '배 껍질'을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이 '넓적한 구둣발로' 짓이긴 것은,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가 그렇지 않은 부류를 멸시하는 도시의 비인간성을 환기하는군.
- ③ 아이가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의 활동사진 기계를 보기도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들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이겠군.
- ④ '배 껍질' 앞에서 주저하던 아이가 '서양 여자'가 던진 돈에 '비수 같은 의식'을 느끼며 달려드는 것에서, 아이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⑤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과 '지까다비 발의 임자'의 행동에 대해 아이가 제기한 각각의 질문은,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의도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도시의 비인간성과 그 이면을 암시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당나라 때 한림학사가 된 장사운은 옥란과 옥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중 옥란을 송 시량의 아들과 정혼시킨다. 권세를 잡고 있던 환관 강환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아들과 옥란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

장 학사가 강환이 권신이라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외면으로 말하기를,

“하방 천한 출생에게 대항문족이 구혼하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허락지 못하오며, 또 이전에 송 시량과 선약하였으니 이 역시 못할 일이옵니다.”

강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저는 서촉의 천한 출생이면서 천행으로 등과하였으면서 남을 환관이라고 업신여기는도다. 저의 생사 내게 맡겼거든 내 말을 어찌 멀리하리오. 소위 송 시량을 먼저 처치하리라.”

하고 즉시 탐전에 들어가 천자에게 참소하여 송 시량을 의금

부의 신문에 부치니, 송 시량이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옥중에 내려가 장 학사에게 기별하니, 학사가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시량에게 일러 말하기를,

“시량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그러하노라.”

하고 전후 사정을 말하니, 시량이 말하기를,

“학사 요량대로 하려니와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

하고 옥으로 내려가니, 학사 시량을 위로하며 명백한 상소를 지어 궐문에 들어갔다. 강환이 그 사연을 알고자 하여 금오랑을 분부하여 북지옥에 가두니 학사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의 죄는 과거가 원수로다. 타향 일이 이렇게 되니 가련하다. 소인에게 잡힌 바 되어 진실을 밝힐 길 전혀 없으니 객지의 귀신이 된단 말인가? 가련하다! 옥란 형제를 세상에 없는 기이한 보물같이 길러 내어 명문거족에 구혼하려다가 천행으로 하남 땅 송 시량과 혼인을 약속하였더니, 원수 놈 강환이 나를 깔보고 천한 출생이라 여겨 구혼하여 이 지경이 되니 내 앞으로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을 환관놈에게 보내리오. 저 애들에게도 편지도 통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기이한 변란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하고, 나중에도 추가로 변론할 길이 없더라.

이때에 강환이 학사의 뜻이 변치 아니할 줄 알고,

‘흉계를 내어 장사운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옥란을 데려다가 늑혼\* 하리라.’

하고 사관이 나가 사운의 행장을 열어 보니 하나의 필갑과 수지가 있어 자세히 보니 그 딸 이름이라. 이별 시에 한 말과 지은 글귀가 다수 있는지라. 가지고 돌아와 그 연유를 엮어 편지하되, 슬프다! 귀옥에 갇힌 장 학사가 어찌 알리오.

강환이 사운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줄 수습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운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 옥란 형제는 부친을 먼 황성에 보내고 주야로 소식을 기다리더라. 이때 황성에서 오는 하인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늘, 옥란 형제 급히 받아 뜯어보니, 편지에 이르기를,

[A] ‘옥란아, 옥계야, 너희 형제 잘 있느냐? 너희 본 지 일년이 넘어가니 침석 간이라도 잇은 적이 없다. 아버지는 천행으로 이름을 금방에 참여하여 한림학사로 출석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너의 현숙함이 경성에 자자하여 명문 거족들이 구혼하는 자가 무수한데 그 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혼하였으니 너희 사촌 영진과 함께 올라오라. 나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여 못 내려가니, 부디 빨리 와서 아버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하였더라.

옥란 형제가 편지를 본 후에 영진을 불러 길을 차려 떠나는데, 사오 일만에 하간부에 들어 어떤 곳을 정한 후에 잠을 이루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학사가 목에 칼을 쓰고 들어오며 옥란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B] “이 일을 어찌 알고 왔느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지옥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아니하니, 가련하다! 너희 형제를 언제 다시 볼까! 소인의 흉계로 너를 데려오니,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옥을 볼 것이니 어떻게 하더라도 도피하여 강포지옥을 면하라.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 땅 송 시량의 집에 가서 의탁하라. 나와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라. 그 이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찾아가라.”

하거늘, 옥란이 놀라서 잠을 깨니 심신이 혼란하여 옥계와 영진을 깨워 이르되,

“괴상하도다.”

“어이할까? 세 명이 도모하여 올라가 상황이나 알고, 만일 대인이 체수\* 중에 계시거든 옛날 한나라 재영\*의 뜻을 받아 구하여야 하되, 여기서 경성이 수천 리요. 남자 옷이 없으니 여자 옷으로 어떻게 수천 리를 가리요.”

옥계가 이윽고 듣고 말하기를,

“형아, 꿈속 일이라 믿지 못하겠지만, 범상한 일이 아니라. 형아 말이 옳으니, 오라비와 옷을 바꾸어 입고 나는 연약하니, 이대로 문밖에 나가서는 각각 헤어져 가다가 경성 가서 서로 만나면, 우리 대인의 신원을 알 것이고, 만일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옥란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하고, 종남매가 옷을 바꾸어 입고 하인이 잠들 때를 엿보아 문을 가만히 열고 나갔는데, 아직 밤중이라. 성문이 닫혀 갈 길이 없었다. 이에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옥란이 먼저 넘고 옥계가 다음으로 넘고 영진이 나중에 넘으려 하다가 수문졸이 알고 붙들거늘, 영진이 옥란 형제가 탄로 날까 염려하여 남자라 밝히지 아니하고 잡히어 앉으니, 시간이 지나 황문 위졸이 알고 성문에 바삐 와 보니, 옥란이 혼자 있는지라. 위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남자,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 학사의 명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가면 소인들은 죽을 것이다. 배웅 오실 것인데, 옥계 남자는 어디 숨어 있는가?”

영진이 생각하니, 옥란의 종적이 탄로 날까 하여 옥란인 척하며, 말소리를 유순하게 하여 말하기를,

“밤에 어떠한 신인이 와서 일행을 잡아가기에 붙잡으려 하고 나오니 간 데 없음에 방황하던 차에 수문졸에게 잡히어 이곳에 있노라.”

하니, 영진의 모양이 옥란과 똑같은지라.

- 작자 미상, 「옥란전」 -

\* 늑혼: 억지로 혼인을 함. 또는 그 혼인.  
\* 체수: 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오래 가두어 둠.  
\* 재영: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한나라 시대의 사람.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환이 참소한 후에도 송 시량은 장 학사에게 정혼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 ② 장 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환은 장 학사의 집으로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냈다.
- ③ 복지옥에 갇힌 장 학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 ④ 옥계는 각자 흩어져서 경성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옥란에게 설명했다.
- ⑤ 황문 위졸은 영진에게 자신이 장 학사의 명에 의해서 왔다고 말했다.

4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를 통해 전달된 상황의 당위성은 [B]를 계기로 드러나게 된 사실로 강화된다.
- ② [A]를 통해 전달된 인물에 대한 평가는 [B]를 계기로 구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 ③ [A]를 통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정보는 [B]를 계기로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 ④ [A]를 통해 전달된 인물의 숨겨진 내력은 [B]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 ⑤ [A]를 통해 전달된 인물들 간의 갈등은 [B]를 계기로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옥란전」에서 혼사는 가문 간의 결합을 통해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주인공 가문은 가문의 명망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늑혼을 거부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문의 취약성은 가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 ① 장 학사가 ‘옥귀신’이 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환관놈’인 강환과의 혼사를 거부하는 것은, 혼사가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겠군.
- ② 강환이 장 학사를 ‘서측의 천한 출생’이라 깔보며 분노하는 것은, 주인공 가문의 취약성을 드러내어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군.
- ③ 송 시량이 ‘의금부의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은, 주인공 가문에 닥칠 위기가 이들 가문과의 결합을 앞둔 다른 가문에서 먼저 현실화된 것이겠군.
- ④ 옥란 형제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성의 담’을 넘은 것은,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이겠군.
- ⑤ 영진이 스스로 ‘옥란인 척’하며 황성에 가는 ‘옥란의 종적’을 숨긴 것은,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행동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